

# 강진군 “전국 최고 품질’ 파프리카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농업회사법인 탐진들 중심 강진읍·군동·칠량·도암 일대 18.2ha

연간 2500여톤 생산 뛰어난 품질·생산능력 인정...해외 각지 수출

강진군에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파프리카 농산물 생산단지 있다. 강진군이 품질을 인증하고 해외 수출을 통해 농업소득 효과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파프리카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귀한 분들에게 드릴 선물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강진군 파프리카는 농업회사법인 탐진들(대표 김중운)을 중심으로 강진읍, 군동, 칠량, 도암면 일대에 18.2ha 규모로 연간 2,500여톤의 생산하

고 있으며, 뛰어난 품질과 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매년 수확량의 55% 이상을 일본, 대만 등 해외 각지로 수출해 강진군 대표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재배온실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과 빗물을 저장하여 작물 생육용으로 활용하는 집수시설 등을 구축해 최적의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ICT 융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유리온실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도 강화하고 있다.

요즘 수확에 한창인 강진 파프리카는 빨강, 초록, 노랑, 주황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 알록달록한 컬러만큼이나 각자 가지고 있는 효능이 달라 고르는 즐거움이 있다. 빨간색은 리코펜과 카로틴이 풍부해 항암작용에 뛰어나며, 초록색은 철분과 유기질

이 많아 빈혈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좋다. 노란색은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여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께 좋으며, 주황색은 프로비타민A를 다량 함유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어 여성들에게 좋다.

탐진들(주) 김중운 대표는 “소비자들이 파프리카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2016년 GLOBAL GAP 인증을 과채류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까다로운 국제기준의 유해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해외 수출 확대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프리카 구입문의는 탐진들 주식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에서 파프리카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회사(061-434-5877) 또는 강진군지하하면 된다. 거제지원센터(061-433-8844)로 문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동파 상수도 민원 ‘323건’ 해결...수도 계량기 27건 무상 교체

원활한 식수 공급·주민 불편 해소 위해 종합상황실 24시간 주야 운영 ‘호평’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수도 계량기 및 급수 관로가 동파되는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원활한 식수 공급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주야로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다. 수도사업소는 지난달 7일부터 22일

까지 16일간 영·섬 유역본부 인력 14명을 지원 받아 수도관리단 전 직원과 함께 40여 명이 주야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동파 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지난달 7일부터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 민원 건수는 동파 25건, 옥내·외 동결 125건, 누수 7건, 옥내 누수 152건, 기타 14건이 발생하여 총 323건이 종합상황실에 신고·접수되었다. 수도사업소는 수도 계량기 27개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지난 16일 동안 계속된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과 긴급

보수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은 즉시 해결하여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창선 수도사업소 소장은 “동결로 파손된 상수도 급수 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아울러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현수 또는 수전 등으로 계량기를 보온해 주면 된다. 기온이 급하강할 땐 수도물을 조금 틀어두면 수도물이 얼지 않는다”고 안내 사항을 전했다.

한편 장흥군은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 287세대에 대한 단수 조치를 올해 5월 3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정흥=김도영 기자

## 완도군,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 대상 확대 일자리 창출·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완도군은 군 자체 시책인 ‘사회적 경제 기업 자립화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등 지역사회 공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구매 활성화와 판로 지원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기업 유형별로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사업 개발비, 사회 보험료 지원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중점 지원하였다.

군은 올해부터는 대상을 협동조합

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지원책이 없어 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이 자립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신상품 개발,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수 경제교통과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우리마을을 해남 으뜸마을로 만들자”

해남군, 연간 50개소 청정전남&해남 으뜸마을 조성 추진

해남군은 주민이 주도하는 ‘청정전남&해남 으뜸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청정전남&해남 으뜸마을 조성은 전남도 핵심시책인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의 지속발전을 돕고 쾌적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사업계획부터 추진, 사후관리까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3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매년 50개 마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은 3년간 매년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과 활발한 추진으로 전남에서 우리군이 청정 으뜸군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다음달 15일까지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신청하세요”

2개 분야 14개 사업...14억 투입

진도군이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범 사업은 2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총 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분야별로 식량작물분야 6종 25개소, 소득작물분야 8종 14개소이며,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이다.

식량작물분야는 오는 2월 15일까지, 소득작물분야는 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식량작물분야 사업은 ▲진도 명품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흑미유량 품종 농가 실증시범 ▲고품질쌀 생산 농가 실증시범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비 재배단지 육성 ▲잡곡류 생산비 절감시범 등이다.

소득작물분야는 ▲바나나, 포도, 체리, 레몬 등 과수생산단지 육성 ▲진

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시간 1특화작목 육성 시범 등 14개 사업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농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집중 추진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